

(주소) 16488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전화) 031-231-8526 (팩스) 031-231-8588

배포일	2025.11.27.	쪽수	사진	기관 도메인주소	자료 문의
보도일 “DMZ, 분단에서 평화로...” 경기문화재단 DMZ 학술포럼 개최	배포즉시 보도 1	1		www.ggcf.kr/	부서 : 문화유산팀 담당 : 윤현승 전화 : 031-231-8526

“DMZ, 분단에서 평화로...” 경기문화재단 DMZ 학술포럼 개최

- ▶ 지난 11월 26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홀에서 개최
- ▶ DMZ의 역사·문화적 가치 재인식과 세계유산 등재 기반 강화 모색

경기문화재단이 주최하고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이 주관한 “DMZ, 분단의 흔적에서 평화의 지평으로” 학술포럼이 지난 26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국내외 전문가와 관련기관이 참석해 DMZ의 과거·현재·미래를 재조명하고, 세계 유산 등재 추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다.

행사는 조준호 경기역사문화유산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세 가지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진수정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학예연구팀장이 “경기도 비지정 근대문화유산, 전쟁·분단유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한모니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 연구원 조교수가 “대성동마을 주민 구술생애를 통해 DMZ의 현재적 의미”를 조명했으며,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은 “국내외 정세 속 DMZ 보존·활용과 세계유산 등재 필요성”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코모스 전문가들이 DMZ의 역사적 가치와 등재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포럼은 DMZ의 역사·문화·생태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DMZ가 평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전환될 중요한 자산”이라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 기반과 국제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DMZ 평화적 활용과 세계유산 등재 관련 후속 연구·교류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